

추석에는 예로부터 모든 가족이 한 곳에 모여 떡과 음식을 장만하고 한 해의 풍년을 감사하며 가족과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는 우리 민족의 정겨운 명절입니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풍습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믿는 가정은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님 안에서 참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1. 과거를 감사하는 가정이 됩시다.

사람은 과거를 잘 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 삶의 당연한 것이 하나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날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늘 나누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삶이 오늘도, 내일도,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2. 현재를 감사하는 가정이 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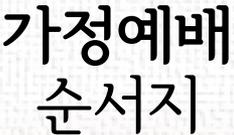
옛날 어른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사셨음에도 성실하게 가정을 돌보시고 이웃을 도우셨습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못해도, 아쉽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어느 때보다 풍족하고 나눌 수 있는 감사한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을 복으로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정을 돌보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조금 부족해도, 조금 아쉬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3. 미래를 감사하는 가정이 됩시다.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자들입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사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멸망 받은 우리가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큰 복입니다. 이는 단지 과거로부터 부르신 것 뿐만 아니라 현재와 다가올 미래에서도 변하지 않는 복이라는 점에서 그 무엇보다도 비견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이런 복을 받은 우리가 어찌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로 결단합시다.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예배순서

예배초청

인도자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찬송

456.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다같이

1.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2.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3.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4.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후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

말은이

성경봉독

시 50:23

다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

감사로 예배하는 가정

인도자

기도

나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인도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넉넉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부끄러움이 없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이 가을의 풍성한처럼 우리도 믿음과 성령의 많은 열매를 거두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생의 제 일 본분으로 알고 살아가게 하시고, 자손들이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4.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다같이

1.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2.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3.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오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축복과 덕담

다같이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축복의 인사
형제들끼리 사랑의 인사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